코캠, Dow와 EV용 2차전지 개발

합작기업 다우코캠에 기술 공급계약 ... 포드와 공급계약 추진도

코캠(대표 황인범)이 Dow Chemical과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에 나선다.

코캠은 미국법인과 Dow Chemical이 2009년 7월 합작으로 설립한 미국 다우코캠에 전기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용 배터리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16일 발표했다.

코캠은 기술공급 계약에 이어 12월까지 다우코캠과 2차전지 생산설비 공급 및 엔지니어링 계약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우코캠은 미국 Michigan의 Midland 소재 Dow Chemical 공장부지에 7만4000㎡ 규모의 EV용 2차전지 생산공장을 빠르면 2010년 말까지 건설하고 2011년 초부터 연간 6만대 규모의 EV 및 HEV용 2차전지를 생산하게 된다.

다우코캠은 포드(Ford) 등 미국 완성차 생산기업과도 2차전지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코캠은 다우코캠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2차전지 생산을 위한 장려금 3억6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말 미국 연방정부와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면 약 12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게 돼 세계적인 배터리 전문기업과 경쟁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범 코캠 대표는 “20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리튬폴리머전지 기술이 글로벌 기업인 Dow Chemical과의 합작을 통해 마침내 꽃을 피울 수 있게 됐다”면서 “코캠을 세계적인 차세대 2차전지 전문 브랜드로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6>